대학별 상황에 적합한 운영이 열쇠

시리즈 오늘의 대학

2. 학과 계열화 실시배경과 과제

학과 통합 '본격화'

지난 10월 각 대학의 95년도 입시 요강이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발표되면서 본교는 5개 학과를 전자·전파계열(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경영계열(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등 2개 계열로 편성 발표하여 학내에 학과 계열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과 계열화 논의는 지난 7월 26일 교육부가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지난 8월중 전국대학 교무처장 회의에서 각 대학 당국의 의견이 수렴되어 각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대폭 반영하게 된 것이다.

개방에 따른 위기의식

교육부의 대학정책변화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다.

현재 세계 각 국의 우수한 대학들은 그 나라의 산업구조, 사회 문화적 특성과 대학의 발전과정에 따라 대학마다 분야별로 특화 되어 있고, 학사과정도 그러한 목표에 부합되도록 학부·학과·전공등 독특한 조직과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대학이 천편일률적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를 편성 운영하고 있어 대학마다 특성있는 발전을 기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대학의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 및 대학 재학생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것이라고 판단한 교육부는 대학 개혁 차원에서 현재의 학과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수 및 학과 세분화 정도를 살펴보면, 71년 71개교 1백88개과 이던 것이 94년 현재 1백31개교에 5백57개 학과로 세분되어 있다.

알맹이 없는 증원

이러한 대학의 양적 팽창은 여러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첫째 대학내부의 요인으로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관련학과의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대학 당국과 학교 법인은 대학의 양적 성장, 재정 확보 수단으로 이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왔고 학과중심의 기득권층의 형성으로 신설과의 정원조정이 불가능 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정원방식에 따른 문제로 정부는 늘어나는 대학진학률을 충족시키고 대학 사율성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이들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것이다. 셋째, 현대 학문의 다원화, 대학원 수준의 전공 세분화를 학사과정 학과 세분화로 변화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방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이제야 풀려 각 대학이 신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는 학과가 명시된 교육법 시행령 대학설치 기준령 등 2백25건에 달하는 관계법령을 학생수 기준, 전공별 기준으로 정비할 방침이며 특성학과 지원도 내년부터 폐지하여 각 대학의 통·폐합 및 계열화 작업이 한결 수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과평가 인정제도도 학문 계열별 평가 인정제 실시이다. 대학은 마땅히 각 교육여건과 특성에 맞게 새로운 제도에 대해 연구 검토하고 검증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도 교육부가 충분한 여유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학과통폐합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95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숭실대의 중소기업학과, 강릉대의 해양생물공학과등 전국대학에 40여개 신종학과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교육부 정책의 실행의지를 의심고 있어 서울대처럼 학과세분화 현상이 뚜렷한 경우도 충분한 연구 검증의 시간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92년도에 이미 통합된 전기 전자 제어 공학군의 경우 분반문제, 교수충원, 합리적인 커리큘럼 등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양대 공대의 경우 1개 공학부 4개군 6개과로 통합하기로 발표되었으나 공대 학생회측이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통합결정에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학교당국은 계열별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과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 10월3일 본보에 입시요강이 보도된 이후 총학과 일부 관련과 학생회는 이번 계열별 모집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번 학과 계열화에 대해 △사전에 학생측과의 논의가 전무했다는 점 △계열화가 발표된 후에도 학교의 구체적인 운영계획및 각과 발전전망의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 △본교의 현실에서 계열화의 실시는 시기 상조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학과 계열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수원학생들의 본관점거시도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학부교육 차별화 위해 관계법 대폭정비

성급한 실시로 시행착오 불가피

올해 입시요강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등 23개 대학이 총 1백74개 학과를 69개 학부, 학과군, 계열 단위로 모집하게 되며 이는 학부제 대학 운영이 제도상 허용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학과 통합에 따른 학내 마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이미 87년부터 서울대 장기 발전계획안에 지나친 학과 세분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학부제 운영에 대해 명시하여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특화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95년 입시요강에 공대의 경우 4개군 7개학과, 사회과학대의 경우 1개군 8개학과, 자연대의 경우 3개군 6개과로 과를 통합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울대 자연대의 이인규학장은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3~4년의 준비기간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성급한 시행은 무리

계열화 모집요강 발표후 무역, 회계학과 학생들은 각 과 교수들과 각각 학과 계열화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교수들은 △계열화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 △학과 계열화는 대학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만을 거듭 천명한 채 별다른 대안의 제시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다. 한편 이에대해 교무처는 계열화를 위해 교양과정개편등의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각 해당과별로 세부 운영방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빠르면 11월말 정도에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 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일 공영일 총장과의 등록금 합의서 이행등 2학기 학지투쟁 전반에 관한 협상에 학과 계열화를 안건으로 올려 학교측과 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3일 '대안없는 학과계열화 철회'를 요구하며 부총장실과 기획관리실장실 점기를 들어내고 이후 서울캠퍼스에서 학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됐으며 이후 학과계열화철회를 위해 지속적인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계열화 대상학과중 경영학과와 전자공학과는 계열화방침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별 특성 집중 육성

근간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는 교육부의 대학정책 변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의 대학운영 방침이 바뀔 때마다 각 대학들의 발전계획도 줏대없이 바뀌고 다들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출입정원제, 제2캠퍼스 정책등 그간 학교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발표되어 오고 있는 많은 시책들의 대부분이 교육부의 대학정책 변화와 맞물려 있는 실정이다.

교육및 연구활동의 성과가 우리보다 앞선 미국, 영국, 유럽등 구미 선진국들의 학사과정교육이 통합화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고 대학나름의 특수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계열화를 비롯한 학과통합논의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진다. 각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의 효과적인 인력수급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각 대학의 정책 입안자들은 대학의 상황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구성원간의 효율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의 정책 제시는 항상 경쟁력 강화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라는 대전제하에서 시작되어 왔다. 이제 우리학교에서도 서서히 진행될 학부제 운영이 진정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 제도 입안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경화 기자〉

인터뷰

수원캠퍼스 교무처장 송영재(공대 전산공)교수

학과 계열화 실시 발표후 한달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현재 무역, 회계학과 및 전파공학과 학생들은 '학과 계열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해당과 교수들의 뚜렷한 세부 운영계획은 발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교무처장 송영재교수(공대 전산공)를 만나 학과계열화의 추진상황및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본교의 학과 계열화 배경과 대상의 선정기준은

=교육시장개방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세계적인 학문의 발전현상에 대응하고 지나친 학과세분화의 폐해를 보장한 상태에서 계열화를 진행하였으므로 앞으로도 계열화를 희망하는 과는 적극 수용한 방침이지만 현재 공대 화공및 섬유공의 계열화, 건축과 조경학과의 계열화의 내년실시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학교는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한 적이 결코 없다. 학교는 지난 10개월간 교과과정을 정비했고 계절학기 활성화등 제도를 정비했으며 늦어도 오름이내에 새로 변경된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나머지는 교육부의 관계 법령정비 뿐이다.

계열화 실시는 자율적 의견수렴 결과

제도 준비 완료, 법령 정비만 남아

—일부교수의 반대와 학생들의 반대에 대한 학교의 생각과 앞으로의 전망은

=학과 계열화는 교수사이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고 교재 개발 연구등의 작업이 다시 정비되어야 하므로 일부 교수들은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및 부전공이 자유로워지고 학문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교육내용에서도 월등히 향상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무척 좋은 제도이다. 학생들에게 계열화의 내용이 분명히 전달되지 않아 잘못 알고 반대하는 것이다.

—80년대 초반의 계열화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0년대초 우리학교는 실험대학의 형태로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 유치한 바 있으나 그당시의 계열화가 부전공 복수전공이 불가능하였던 단점이 나타났던것과는 달리 현재의 계열화는 이런 단점을 최대한 보강한 것이다. 학생들의 전공및 부전공등 학문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준비는 충분한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학교측은 강제성이 없이 각 학과의 자율성을 최대한 박기위하여 계열화를 적극 권장하게 되었고 본교의 경우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궁정적으로 학과계열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일단 교무위원회에 회부한 후 전체 교수들에게 계열화 관련 교육부 공문을 배부하여 자유로운 논의 과정을 거쳐 계열화를 실시하겠다고 희망한 과에 한해서 지난 9월 학과 정원 조정 신청이 이를 반영하였다.

—그간 계열화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은

=각 해당과 구성원이 반대하는 계열화는 학교차원에서도 접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일단 지난 5월에 논의를 시작해서 본교는 2개 계열만 실시하게 되었다. 계열화를 위한 준비는 지난 4년간 진행되었던 교과과정 개편을 마무리 하므로서 부전공 복수전공등을 최대한 가능하게 했다. 교육부의 법령정비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현재는 계열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채용회사

POSCO ..... 철강생산
POSEC ..... 엔지니어링·건설
POSCON ..... 공장자동화
POSDATA ..... SI, OA
POSCOCHEM ..... 정밀화학
POSCOHULS ..... 반도체
POSTEEL ..... 철강유통
POSTRADE ..... 종합무역

한국을 이끌어온 기업
세계를 이끌어갈 기업

POSCO의 미래경영을 맡아 주십시오

이시대 최고의 인재가 모여 세계와 겨루는 기업,
철강사업과 함께 건설·엔지니어링,정보통신분야에서도
세계일류 기업경영을 창조하고 있는 기업 포스코 —
큰 꿈을 지닌 인재를 포스코의 큰 세계로 초대합니다.

대졸신입사원모집

1. 모집분야 및 자격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기술계	기계,전기,전자,금속,화공,IE,토목,건축,전산	○○○명	●정규4년제 대학(원) 해당 또는 관련학과 학사·석사 학위취득한 분 및 '95.2월 학위취득 예정인 분 ●학사는 '67년 1월1일 이후, 석사는 '6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분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사무계	경영,경제,무역,법학,행정		

※ 인문 사회계열 및 이분계열은 모집분야 중 1개분야를 택일하여 응시

2. 전형방법
●1차 : 필기시험(영어, 상식)
- 일시 : '94.12.4(일) 오전 9시
- 장소 : 홍익대학교 및 홍익여중고(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2차 : 면접,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3. 서류제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회사소정양식) 1부

지원서교부처	지원서접수
●각 대학 학생처 또는 취업부 도실 ●포항제철 서울사무소 (서울시청 좌측 소재) ●공동채용 각사 인사과	●기 간:'94.11.10(목)~11.24(목) ●접수방법: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포항제철 인력관리부

4. 기타사항
●1차전형은 그룹공동 전형하며 2차전형은 입사지원한 각사별 별도전형에 의거 합격결정함
●국가 보훈대상자는 증명서 제출시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기타 의문사항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문의처:02-7584-431~3)

포스코그룹인력관리위원회